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여금 확보

8개 사업자와 주민 수용성 확보 2500억원 규모 조성 업무협약 피해보상·공유화 기금 등 마련



지난 26일 신안군과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기여금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이 지난달 26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사)신안해상풍력발전사업의제 및 태양광 발전사업자 8개사와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기여금 조성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민간 주도로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공공주도 하에 투명한 민원 처리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체결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공 주도 민원 처리 지원 ▲기여금 규모 및 조성 시기 ▲지역업체 도급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발전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 문제와 갈등, 그리고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사회적 매물 비용 방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공유화 기금 조성 용역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후 체결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기여금으로 약

2500억원을 사업 추진 시기에 따라 조성하기로 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주민수용성 확보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성패를 좌우하지만, 무분별한 현금 보상은 주민들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다른 발전사업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여러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합

리적인 보상과 공공주도 민원 처리를 통해 전국 차단체의 시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성된 기여금은 발전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 주도 민원 처리 지원사업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목포시 휴일긴급돌봄 어린이집 연장 운영

생후 6개월~취학전 영유아 대상 하루 최대 3시간→5시간 서비스

목포시가 내년부터 휴일긴급돌봄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연장 운영한다.

목포시는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을 1일 최대 3시간에서 최대 5시간으로 연장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휴일긴급돌봄 어린이집은 양육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목포시는 지난해 7월부터 북항동 소재 다윗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용가능한 긴급한 상황이란 휴일·주말에 응급진료나 경조사 또는 근무 등의 피치 못할 사정

이 생겨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다. 여행이나 유휴 등 사유로는 이용이 제한된다.

목포시에 거주하는 6개월 이상의 취학 전 영유아는 어린이집 이용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용방법은 어린이집에 전화 또는 현장 방문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그동안 휴일과 주말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 긴급하게 자녀를 맡길 곳을 찾던 양육가정에 휴일긴급돌봄 어린이집이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양육환경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한 만큼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목포=정봉선 기자 jbs@kwangju.co.kr

해남군 50억 투입 농촌공간 정비 사업

2026년까지 시등마을 환경 개선

해남군이 2026년까지 50억원을 투입해 현산면 시등마을을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속도를 낸다

해남군은 현산면 시등마을에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의 기본계획이 최근 승인됐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 주관 사업인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에 필요한 위해 시설의 정비 및 정주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남군은 현산면 시등마을, 산이면 금호마을, 송지면 어란마을 순으로 3년 연속 공모에 선정됐다.

현산면 시등마을 일원에는 2026년까지 50억원

을 투입해 마을 내 위해시설인 폐 도정 공장과 빈집 6개를 철거하고 그 부지를 활용해 귀농귀촌인 임대주택, 유휴 습터, 마을 공유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마을 내 사고 위험요소 및 경관 저해요소를 제거해 쾌적한 정주여건을 확보하고 마을 이미지를 개선, 귀농귀촌인 유입을 유도하는 등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생활안전권을 위협하는 위해시설을 정비해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함으로써 농촌다움을 복원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잘나가는 완도 수산물... 지난해 2000만달러 수출 계약

전북 유럽 시장 진출 물꼬 트고 국내외 판촉·소비촉진 큰 성과



완도군이 지난해 6월 장보고한상 수상자 세계대회에서 발칸 우뜨레 불가리아와 특산물 수출 협약을 했다.

완도군이 수산물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판촉 활동을 펼친 결과 지난해 2022만 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국제수산물박람회, 부산국제수산물EXPO 등에 참가해 475건의 바이어 상담을 통해 451만 달러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2024년을 '유럽 시장 개척의 원년'으로 삼아 장보고한상세계대회와 연계, 오스트리아와 비엔나에서 수출 상담회를 개최해 1271만 불 수출 협약을 성사했다.

네덜란드, 불가리아 등에는 전북 통조림과 순살 전복 등 전북 가공 제품이 수출돼 유럽 시장 진출 물꼬를 텄다.

군은 지난해 5월 인도를 시작으로 미국, 캐나다, 불가리아, 네덜란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도 개최해 수산물 60만 달러 어치를 수출했다.

캐나다 바이어와는 현지 프로모션 행사를 통해 300만 달러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국내 소비 촉진 활동에도 구슬땀을 흘렸다.

전북 출하 시기에는 시즌별 판촉전과 다각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 업체와 전북 판매 행사를 14회 진행했다.

전복 소비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비 2억원을 투입하여 활 전복 70톤을 판매하고 수산물 상생 할인·로코노미 상품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외식 메뉴 개발, 가공 전복 소비 활성화에 힘썼다.

지난해 12월 26일 무안에서 열린 '2024 전남 수출 기업-관계자 전진 대회' 농수산물 수출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도 수상했다.

군은 내년도도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식품전시회, 뉴욕에서 열리는 장보고한상 세계대회에서 특산물 판촉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세얼굴

"고객만족 최우선 가치로 고객 중심 경영"

박형수 영산강사업단장



"고객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객 중심 경영을 펼치겠습니다."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제33대 단장으로 취임한 박형수(사진) 단장은 "고객 니즈를 최대한 반영하는 사람 중심의 경영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조직 구성원간 신뢰를 바탕으로 화합과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농어민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 현장중심의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 출신인 박 단장은 조선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농어업토목기술사 자격을 취득했

며, 1995년 공사에 입사해 영산강사업단에서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실무자와 부장으로 근무했다. 전남지역 본부 고흥 스마트팜혁신밸리 추진단장과 수자원관리 부장, 기반사업부장, 목포 무안신안지사장 등을 역임

했다. 박 단장은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전문가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관리를 통해 농업발전에 이바지 해왔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